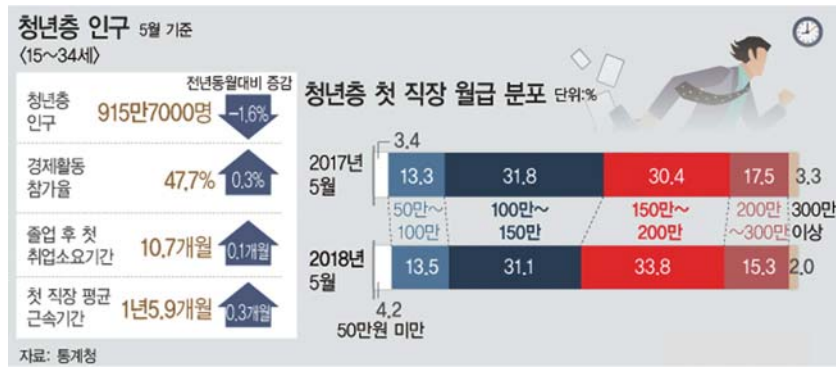


청년층, 월급 150만원 미만 수령 48.9%

통계청 “명목임금상승,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있어”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7개월...전년비 0.1개월 ↑



첫 일자리에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는 91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5000명(-1.6%) 감소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36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명 감

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478만9000명으로 10만 3000명 줄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7.7%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42.7%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시간은 4년 2.7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4개월 증가했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1개월 늘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일자리가

입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0.7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3~5개월 미만인 12.0%로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6개월~1년 미만은 10.8%로 2.0%포인트 상승했다.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로 전년동월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4%), 도소매·음식숙박업(29.3%), 광업·제조업(17.5%) 순으로 높았다. 남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3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7.6%), 광업·제조업(25.0%) 순이며 여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7.6%), 도소매·음식숙박업(27.9%) 순이었다.

첫 일자리의 직업별 분포는 서비스·판매종사자(31.8%), 관리자·전문가(24.1%), 사무종사자(22.6%) 순

으로 높았다. 남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31.7%), 기능·기계조작종사자(21.2%) 순이며 여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31.9%), 관리자·전문가(29.3%), 사무종사자(29.2%) 순이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0%)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2%),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2.4%) 순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150만~200만원 미만(33.8%), 100만~150만원 미만(31.1%), 200만~300만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150만원 미만은 48.9%로 지난해(54.2%)보다 5.3%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첫 일자리 취업에서 150만원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54.2%였는데 올해 48.9%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그런 것은 명목임금상승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농촌공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13년간 9859농가 경영회생 지원

매각농지 최대 10년간 임차·임차종료시 환매권 우선 보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9859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재해 피해율 50% 이상, 3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농지매입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사업 규모만 2600억원(1300ha)에 달한다.

이 제도는 매각 후에도 해당 농지를 최대 10년까지 임차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고, 임차 기간

종료시 해당 농가에 우선적으로 환매권을 보장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잇점 때문에 지원받은 농가 상당수가 매각 농지를 되찾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6년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185농가 중 75%인 139농가가 2018년에 환매 완료로 통해 농지를 되찾았다. 2007년에 지원받은 444농가의 88%인 369농가도 2017년에 환매를 완료했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은 경영능력이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돕는 유일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더 많은 농가가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원, 166만→344만 가구...2배 증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제(ELTC)의 대상인원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최대지급구간도 3배 가량 급증하고 최대지급액도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

했다.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의 경우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확대된다.

홀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늘어난다.

로 늘어난다. 홀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했다”며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방식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다음연도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한다.

입류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국제 체납액에 총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입류금지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단독가구는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10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홀벌이가구는 85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 맞벌이가구는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8월 말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입류금지 규정 신설
최대지급구간 3배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최종 확정 예정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령요건은 폐지된다. 이로써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요건은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76.7% 확대된다.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현행 200만원, 250만원에서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역공공기관장소 정문지점 전인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광주 유·스퀘어 9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광주종합터미널 유·스퀘어(U Square)가 2018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1위에 선정됐다.

당신(You)의 광장, 젊음(Youth)의 광장이라는 의미의 유·스퀘어는 전국 최초로 터미널의 기본 기능과 함께 외식·영화·공연관람·독서 등 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시도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금호터미널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KSQI에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이후 9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영혁신컨설팅이 발표하는 KSQI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을 숨긴 조사원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인사, 복장, 용모, 경정태도, 친절성 등 11개 항목이며, 유·스퀘어는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현철 금호터미널(유스퀘어) 사장은 “앞으로도 유·스퀘어가 문화와 예술, 젊음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